



# 철저한 안전관리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행복’ 선사

박영재 (주)한진중공업 컨소시엄 인천공항사업소 안전관리자

취재 김성대 기자 glshu002@safery.or.kr



(주)한진중공업 컨소시엄 인천공항사업소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탑승동 신축공사에 참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개항 후에는 공항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곳 사업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하다. 주요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시행하여 각 시설물들이 완벽한 성능과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있는 것. 사실상 공항 관련기관 관계자 및 상주직원, 공항 이용객 등이 사업소 덕분에 공항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공항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는 이곳 사업소의 안전관리자 박영재 대리를 만나 봤다.



## 현장의 특성 반영한 안전을 하라

'대리'라는 직위만을 보고 박영재 안전관리자를 갖 초짜를 벗어난 안전관리자로 판단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그는 여러 건설사의 다양한 현장을 두루 거친 후 지난 2007년 2월 한진중공업에 입사한 경험 많은 안전관리자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건설업과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넘나들며 우수한 안전관리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실로 '만능 안전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주)한진중공업 컨소시엄 인천공항사업소는 공항공사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의 기계시설, 전기시설, 건축시설 등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맡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시설 및 각종 장비에 대한 점검,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 관련법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 이행 및 이를 위한 세부방안 수립 등이 이곳의 업무다.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재해의 위험이 뒤따른다. 기계·전기·건축시설에 대한 보수작업 등을 행하면서 협착, 감전, 추락 등의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

이런 위험성에 대비해 그는 현장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다. '창이 투명한 안전모의 보급 및 착용'이 그 대표적인 예다. 공항은 천장에 있는 전등 하나를 교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천장이 높다보니 교체작업을 할 때 고개를 들고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안전모가 시야를 가려 안전한 작업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에 그는 창이 투명한 안전모를 근로자들에게 지급,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 위험을 사전에 완벽 차단하라

박 안전관리자가 펼치는 안전관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선제적인 안전활동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모든 안전관련 활동들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한다. 이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미리 안전한 작업방법을 습득시키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 및 중량물 취급, 화기취급 작업 등과 같은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작업 전에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각 부서의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작업 절차를 작성하고, 그 절차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그의 사전재해예방활동은 보건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곳 사업소는 유지관리업 특성상 교대근무가 잦다. 그리고 1년 365일 이용객들이 있는 공항이다보니 주요 작업은 보통 야간에 이루어진다. 교대근무와 야간작업은 신체리듬의 불균형을 불러와 재해발생의 확률을 높인다. 이에 대응해 그는 작업 투입 전 필히 체조와 스트레칭 시간을 가져 근로자들의 피로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특히 야간작업의 경우는 더욱 세심한 안전관리를 펼쳐 줄음, 피로 등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철저히 예방해나가고 있다.

## 안전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하는 것

그는 근로자들이 안전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개인 안전모에 안전작업 절차서, 안전작업 체크리스트 등 각종 안전보건정보가 담겨 있는 블로그로 연결되는 사업소 QR코드를 부착했다. 이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근로자들이 유용한 안전보건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그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시각차를 좁히고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기적으로 노사가 함께 안전순찰에 나서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서로가 느끼는 위험요소를 공유하고, 그 개선방안을 토론함으로써 재해예방활동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의 향후 계획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위험성평가)을 내년부터 사업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합심, 사업장 내 사고 및 직업병 발생 원인을 찾아내 유해·위험 정도를 판단하고 개선을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가 꿈꾸는 '노·사 협력적 자율안전보건활동 체계'가 향후 어떻게 실현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